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신년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청파교회의 모든 가족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올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는 이의 소임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교회 안의 작은 모임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으로 악을 지워 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고후 5:16,17 인도자
 - ▲ 교 독 문 93번. 새해(1)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552.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함께
 - ▲ 성경봉독 고후 5:16-21
 - I. 인도자
 - II. 강세기 권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봉독자
다 함께
- 찬 양
 - I. 주 날개 밑 마중물 찬양대
 - II. 여호와는 위대하다 청파 찬양대

말씀	그리스도의 사절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36.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더는 옛것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선뜻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이 세상 속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자이크

공동체란 전혀 달콤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공동체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희망의 몸짓으로 그것을 서로에게 내보이는 사람들의 교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삶이란 득실과 희비와 기복의 연속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혼자 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잔을 함께 들기 원하며 그리하여 혼자 살 때는 감당 못할 것 같은 개인생활의 상처가, 서로 돌보는 교제의 한 부분이 되면 오히려 치유의 근원이 된다는 진리를 만끽하기 원한다.”

공동체란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것이다. 작은 조각만 보면 다 시시해 보인다. 한 조각은 밝은 빨간색인데 다른 조각은 차가운 파란색이다. 칙칙한 녹색도 있고 따듯한 자주색도 있고 선명한 노란색도 있고 눈부신 금색도 있다. 귀해 보이는 것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있다. 요긴해 보이는 것도 있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있다. 번듯해 보이는 것도 있고 가냘팠 보이는 것도 있다. 개개의 돌로 본다면 서로 비교하며 멋과 가치를 따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작은 돌들이 모두 한데 모여 커다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를 이룬다면 누가 감히 돌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달 수 있겠는가? 가장 불품없는 것일지라도 단 한 개라도 없으면 얼굴이 온전할 수 없다. 한 모자이크 안에 함께 있을 때 작은 돌은 저마다 필수요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제몫을 담당한다. 그것이 공동체다.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개인 간의 차이를 더 이상 경쟁의 근거로 보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운 공동생활의 기여요소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 나이와 생활방식과 인종과 계급과 언어와 교육 수준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모여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다. 세상에는 공동 이익단체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뭔가를 변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단체들은 종종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업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와는 본질이 다르다.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할 때 우리는 경험, 지식, 문제, 피부색, 성별 따위가 같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께 함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를 갈라놓는 많은 다리를 이을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를 같은 인간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자유를 얻는다. 공동체로 함께 모인 이들이 긍휼의 주님의 증인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란 소속감뿐 아니라 거리감도 함께 창출하는 공동체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서로를 채워줄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 돕지만 우리의 운명이 공동 이상의 것임을 또한 서로 일깨워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지원은 공통된 기대 안에서의 지원이다. 그러려면 공동체를 안전한 쉼터나 편안한 패거리로 전락시키려는 이들을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며, 장차 올 세상을 고대하도록 서로 늘 격려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혈연, 사회적 경제적 평등, 공통된 압제나 불만, 서로 끌리는 매력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새 땅’으로, 광야에서 옥토로, 노예에서 자유로, 죄에서 구원으로, 포로에서 해방으로 불러내셔서 택한 백성 삼으셨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공동생활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그 모든 단어들과 이미지 속에 잘 나타나있다.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에클레시아라 부른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부르다’는 뜻의 칼레오와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가 모여 된 것이다.) 옛 세상에서 나와 새 세상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다.

-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복있는사람) 중에서

출발

- 정현종

모든 게 처음이에요
처음 아닌 게 없어요
싹도 가지도
사랑도 미움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요
기왕 시작된 건 없습니다
죽음 이외엔
죽음 이외엔 아무 것도

자, 우리가 출발시켜야 해요
구름도 우리가 출발시키고 (구름이여 우리를 출발시켜다오)
바람도 시민도
나라도 늙은 희망도
우리가 출발시켜야 해요 (나라여 우리를 출발시켜라)
지금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들의 이/ 끄떡도 하지 않는 바위
이름 부를 수 없는 쇠덩어리도
우리가 출발시키고
... (중략)
우리가 우리의 것을
출발시켜야 해요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김금순 김나름 김미숙 김성순 김숙희 김영희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기 김정민 이혜령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김중수 이순정
 김지해 김지훈 김진옥 김진혁 신다현 김태한 김형근 김혜라 김홍수 노연정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석희 조항미 박태영 박해숙 방 민 방 준
 서지은 소광섭 송정근 이소선 송형운 하미림 심해성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왕수명 유중희 이동천 이미휘 이용석 이유진 이은주 이재삼 전정현 이현주
 임고은 임광호 임당재 임 영 정경례 장기환 장병준 박소현 전현선 정성식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조항범 오현정 최승주 조호진 최옥분
 최종원 최진성 최영은 최희영 한상익 정영선 한인철 조운숙 허진영 홍복선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김나름 김반야 김숙희 김와니 권윤경 김인석 이선화 김정규 이종옥 김종성
 김태정 박상규 신연화 박재영 이현정 박홍재 백성래 백자혜 안미숙 윤선호
 임선아 이상도 임종수 전해연 정영례 정용구 이삼남 조두희 오연훈 조옥분
 채일석 허정호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녹색꿈헌금

우순덕 임설희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신년주일 :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9년 교회 표어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입니다. 합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교회입니다.
3. 의무헌금봉헌 : 다음 주일에 의무헌금(약정)을 봉헌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신년사경회가 7-10일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5. 가정예배서와 묵상집 : 감리교 가정예배서 <하늘양식>과 묵상집 <헤른후트 기도서>를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6. 반주자 : 1부 예배 찬양대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반주자로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회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모집 : 1부 예배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주차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8. 재무부 회의 : 재무부 회의가 13일 오후 3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평신도 기획위원과 권사입니다.
9.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개인별 헌금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내려 받으면 됩니다.(1월 15일부터 가능) 기부금 영수증을 서면으로 신청하셨던 분 중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재무부실이나 재무부장 김정민 장로(010-9892-4017)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떡 대 접 : 신진식 변혜정

다음 주 설교 본문	마 9:14~17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김정민	김윤정	김재흥

1월	1부 영접위원	곽권희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장원호	조문규	윤성종	진정숙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규석	주은경	김윤정

오늘 식당 봉사	박영신	박미연	최미경	이미휘	고혜경	채옥춘	김종락	설규범
다음주식당봉사	이현숙	이은미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김태한	임당재	신정훈
오늘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